



북한 기도회

2021년 3월 - 4월



기도제목1. 북한의 다음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교육이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북한 공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으로부터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일가 우상화 그리고 남한, 미국에 대한 증오교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위한 역사왜곡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정권의 의도대로 북한의 다음세대가 세뇌된다면 통일은 둘째 치고 북한주민의 사고와 가치관이 기형적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교육과정의 우상화와 증오교육이 북한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 사진출처:뉴스시스>



기도제목2. 탈북민 대안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10여개의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공간확보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은평구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 온 북한 출신 다음세대를 위해, 그들을 돕는 대안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민 대안학교,
사진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통일부 블로그>



기도제목3. 코로나 종식과 선교 현장의 대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북한선교현장의 사역이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경통제와 선교현장 일부지역 지역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멈춰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종식 후 펼쳐질 새로운 상황에 대해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도록, 국경봉쇄와 왕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선교사들이 잘 타개해 나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는 사역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현장 사역자들이 잘 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4. 북한사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로 김정은은 경제, 농업 각 분야 일꾼들에 대한 공개 질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간부들에게 샅대 질하며 허풍,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지난달 이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열린 시, 군 책임비서 강습회에서도 김정은은 "농업부문에 뿌리 깊이 배겨 있는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야한다"며 농업 일꾼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 자체입니다. 북한사회각 부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북한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북한 정권 자체의 책임을 사회 하부조직, 인원들에게 전가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당, 정부 각급 일꾼을 질책하는 김정은>

기도제목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과 남한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억류돼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입니다. 이들은 2013년과 2014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이후 현재까지도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서 풀려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이 갇혀있는 동안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6. 국제사회와 북한의 연결점 유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불법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북한 무역일꾼을 미국측에 압송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주 북한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던 유럽연합(EU) 산하 6개 국제 NGO의 직원들도 모두 북한을 떠난 상태이며 UN산하기구로 유일하게 북한에 주재하였던 WFP역시 2명의 직원 모두가 북한을 떠났습니다. 이로서 북한은 국제기구 주재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며 직원이 모두 떠난 대사관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NGO조직이 사라진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도적, 신앙적 목적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폐쇄된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기도제목7. 국제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은 순항미사일(3월 21일)과 탄도미사일(3월 25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은 정상간의 유대관계를 과시하는 구두친서를 교환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 통일에도 국제정세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국제관계에는 이해 당사국들이 다 감지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국제정세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을 위하여 국제역학관계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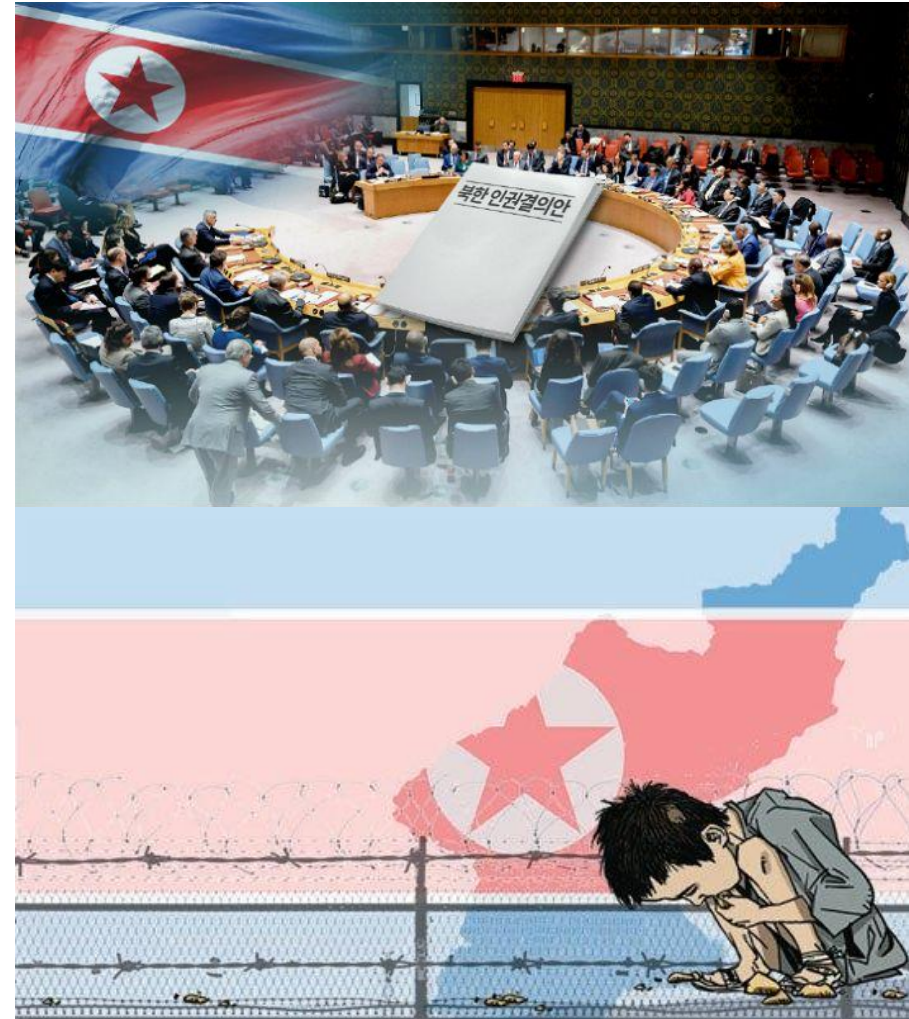
<북한의 열병식에 공개된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영상 캡처 (동아일보)>

기도제목8. 북한인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나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압박이 압박을 받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한국정부와 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현정부가 북한인권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한국 사회와 성도들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선도해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9. 북한의 식량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와 식량생산량 감소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보릿고개에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약 440만t으로 지난 2019년도에 비해 5.2%가 감소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올 1월 미 농무부는 북한 주민 63%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104만 6천t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식량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올해 북한에서의 사업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상황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보릿고개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